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9장 (통일찬송가 53장)	
교 독 문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찬 양 과 경 배	320장 (통일찬송가 350장)	
기 도	조 계 승 장로	심재선 청년
특 송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20절	빌립보서 2장 9-11절
설 교	사역자의 바른 태도와 목적 (임춘배 목사)	나의 왕관을 놓으리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10:1-18)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 배 안 내**
 - 1.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로 나누어 대면예배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 2.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일기도회 영상 제공합니다.
 - 3.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 4.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 : 예레미야 애가 1장 ~ 에스겔 31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교 회 이 전 예 배**

오늘 주일(29일) 오후 3시.
원종선 목사가 시무하는 가슴뛰는 교회 이전 예배 드립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올바르게 걸어가기를
----------------------	--

찬송 : '하나님 사랑은' 299장(통 418)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베드로전서 4장 7~11장

말씀 : 주님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뤄져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골 1:18). 그러나 인간은 늘 자신이 머리가 되려 욕심을 냅니다. 많은 교회가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분열됩니다. 교회의 작은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가정을 교회 되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각각의 지체는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8~10절). 허물을 덮는 사랑은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허물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치 치하에서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본회퍼도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수치스러운 것을 서로 나누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롬 3:10)는 바울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허물을 덮는 사랑이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이 눈에 띄는 때마다 지적하고 교정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갈등과 나뉘, 찢김,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허물을 덮기보다 들춰내는 세상,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발판 삼아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세상의 영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7절). 사랑하며 살 시간도 없는데 허물을 들춰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 되기도 바쁜 오늘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가득해 허다한 허물을 덮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넘쳐 나기를 소망합니다.

제 목

사역자의 바른 태도와 목적 (살전2:10-20)

서 론

바울은 바른 사역자의 태도와 사역하는 목적을 교훈합니다.

1. 사역의 태도와 목적

- (1) 믿는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여야 함 (10절)
- (2)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 (11절)
- (3)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 (12절)
- (4) 오직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함 (19절)
- (5)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이다 (19,20절)

본 론

2. 교훈

- (1) 바른 사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 (2)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 (3) 나의 최고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결 론

말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날짜 : 5월 30일
찬양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본문	고린도전서 13:1~7		
말씀요약	방언과 예언을 해도, 큰 믿음이 있어도, 힘써 구제하고 몸까지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딥니다.		
목상질문 1	사랑이 없으면 13:1~3 바울이 대단한 은사들보다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기도가 필요할까요?		
목상질문 2	사랑의 속성 13:4~7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삶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내가 내어준 공간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숨 쉬고 안식하며,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희망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픔도, 실망도, 실패도, 고난도 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풍량이 잠잠해 집니다. 때로는 사랑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사랑은 생명과 창조의 못자리 역할을 멋지게 해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 사용을 위한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정작 제 삶에서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사랑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라”	
찬양과 기도	성령의 은사를 (새 196, F)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와 찬양, F)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오래전에 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후 세상에 가 보았더니 모든 사람의 팔 관절이 고장 나 팔을 굽히지 못하더라 합니다. 팔이 아파 자기 입에 음식을 넣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먹지 못하니 모두 말라서 뼈만 앙상했고, 얼굴은 굶주림과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반면 천국에 가 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이 통통하게 찌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합니다. 잘 살펴보니 그들 역시 모두 팔을 굽히지 못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먹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에 음식을 넣어 주고 물도 마시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화이지만 상징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중심성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진 모든 인간 사이에는 이런저런 이해관계의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타인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자기중심적 태도, 즉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p>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14:1~12		
목상포인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적 은사로 인해 불거진 분쟁의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역설하며 '그중의 제일은 사랑'(13:13)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덕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교회에 덕이 되는가?'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생명을 전할 수 없으며,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면 상대방에게 외국인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무엇이며,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이 유익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4절)		
적용하기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사는 무엇이며, 어떤 동기로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제게 주신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길 원합니다. 저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지체들을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에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소서.		
기도			

매일 Q.T.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날짜 : 6월 3일
찬양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본문	고린도전서 14:26~40		
말씀요약	성도는 모일 때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경우에 만 두세 명이 차례대로 하고, 예언할 때는 다른 이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스스로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편지로 경고합니다.		
목상질문 1	질서와 화평 14:26~33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잠잠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공동체 질서를 위해 내가 '분별'하고 '제재'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품위와 질서 14:34~40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품위와 질서를 위해 내가 잠잠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4장 33, 40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혼돈과 무질서가 추방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내면은 말씀과 진리로 정돈된 질서를 지니며, 기도와 성령으로 운행되는 교회는 섬김과 배려가 조화된 공동체가 됩니다. 은사가 '화평과 질서'속에서 발휘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넘치도록 주신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그 은사가 아름답게 쓰이기를 간구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그 열매로 주님의 성품이 맺히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모든 일에 화평하고 질서 있게 행하여 믿는 자의 품위를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매일 Q.T.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남기는 성도	날짜 : 5월 31일
찬양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본문	고린도전서 13:8~13		
말씀요약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 방언, 지식 등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히 알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입니다.		
목상질문 1	사랑과 은사 13:8~10 '온전한 것이 올 때'(10절)란 언제인가요? 사라지게 될 부분적인 은사를 지키려고 사랑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목상질문 2	지금과 그때 13:11~13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장성한 사람처럼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내 인생 끝까지,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가 붙잡을 가치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버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것을 아낌없이 버려야 비로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숙한 '말, 깨달음, 생각'은 모두 옛 자아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 표현된 옛 사람과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옛 자아를 아낌없이 버릴 때 성령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자아가 생성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 이전의 모든 것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마지막 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나의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갈수록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커져 가게 하소서. 부분적으로 행하던 은사가 다 폐하여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그날에 저도 주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매일 Q.T.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날짜 : 6월 1일
찬양	찬송가 595장 나 말은 본분은		
본문	고린도전서 14:1~12		
말씀요약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하길 바라라고 권합니다. 뜻을 알 수 있는 예언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반면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유익합니다.		
목상질문 1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 14:1~5 바울이 교회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목상질문 2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 14:6~12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전할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깨끗한 것일수록 오히려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선한 하늘 선물'인 '은사'를 사모할 때, 무엇보다 은사를 사모하는 '동기'에 대해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섬김'에서인지, 아니면 영적 탁월함을 과시하려는 '야망'에서인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교회를 살리는 '약(藥)'이 될지, 아니면 죽이는 '독(毒)'이 될지가 이 부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저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모습을 용서하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듬는 은사로 저와 공동체가 풍성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은사로 거닌 발자국에 사랑의 흔적만 남게 하소서.		

매일 Q.T.		알아듣는 말씀이라야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날짜 : 6월 2일
찬양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본문	고린도전서 14:13~25		
말씀요약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전한 다섯 마디 말이 일만 마디 방언보다 낫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전파할 것입니다.		
목상질문 1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 14:13~19 일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전한 다섯 마디 말이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적 자리에서 내가 절제할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 14:20~25 방언과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덕이 될까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성령의 은사에서 우열(優劣)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방언보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의 유익함을 더욱 강조합니다.(14:5). 그 이유는 '통역 없는 방언'은 '이해되지 않는 말'(16절)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이 '난해한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름다워야 증언하는 '말씀'도 아름답게 예우받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저희만의 언어와 감정으로 세상과 벽을 쌓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저와 공동체가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깨달은 은사를 사모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계심을 보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소서.		